

# 전북지역, 본사 중심 신도회 'START'

## 9월 6일 조계종 24교구본사 교창 선운사 총신도회 창립

최근 지역불교 활성화와 함께 교구신도회 창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계종 24교구가 본사 중심신도회를 비롯해 교구신도회를 창립하고 신도조직화에 나선다.

조계종 24교구 본사인 교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9월 6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총신도회 창립법회를 열고 각급 신행단체를 아우르는 총신도회를 발족시켰다.

이날 창립법회에는 선운사 거사팀, 관음회, 합창단, 청년회, 선운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선사모) 등 신행단체 임원들과 회원불자들이 30여 명이 동참했다.

선운사는 그동안 다양한 신행단체가 있었지만 이를 아우르는 총신도회는 있지 않았다. 총신도회는 신행단체간 교류와 신도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날 창립법회에서는 총신도회장으로 정만수 교창본사의 전문위원이 선출됐다. 또 부회장은 조계종 24교구 신행단체들이 당면적으로 참여해 이양연 거사팀 회장, 신동경 선사모 회장, 관음회 박정숙 회장, 백금수 합창단장이 부회장에 선임됐으며 정남규 청년회장이 사무총장을 맡게 됐다.

법회에서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선운사 총신도회의 결성은 사부대중이 함께 선운사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불자들이 기도와, 수행, 교육 등 신도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스님은 또 "그동안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신행단체의 역할을 총신도회로 결집해 세분

### 각급 신행단체 총괄하는 조직 구성 사찰 재정 공개 및 운영 참여 논의 21일 제24교구신도회도 발족 예정

화된 역할 분담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회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운사 총신도회는 창립과 동시에 주지 법만 스님과 포교국장 성진 스님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총신도회 임원들은 선운사



조계종 24교구 본사인 교창 선운사는 9월 6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총신도회 창립법회를 열고 각급 신행단체를 아우르는 총신도회를 발족시켰다.

발전을 위해 사찰 구성원들의 힘이 결집돼야 함과 함께 향후 총신도회가 사찰운영에도 참여해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먼저 선운사 재정을 총신도회에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선운사 복지법인 이사에도 총신도회 임원이 진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러 총신도회의 구체적인 활동계획으로는 △사찰조직 창립 △24교구 신도회 발족 등을 결의했다. 상조회 창립의 경우 선운사에서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하되 재원마련은 신도회가 바자회 개최를 통한 수익금과 회비 등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상조 뿐만 아니라 경사에도 적극적으로 총신도회가 동참키로 했다.

이와 함께 9월 21일에는 제24교구 60여개 말사를 총괄하는 교구신도회를 발족키로 했다. 선운사에서 열린 24교구 신도회 창립법회에는 포교국장 지원 스님과 이기홍 중앙신도회장이 참석한다.

조종제 전북지사장

# 장사상륙작전참전 전몰용사 합동위령제

## 9월 3일 장사해수육장서

영덕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현담)가 주관하고 영덕군·장사상륙작전참전유격동지회가 주최한 제35회 장사상륙작전참전 전몰용사 합동위령제가 열렸다.

장사해수육장 내 위령탑에서 9월 3일 열린 이 행사는 김영재 유격동 지회장, 이진삼 전육군참모총장, 안병태 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 포항불교사암연합회 자문위원 준재 스님, 천주교 강구성당 본당 김원용 신부, 기독교연합회장 오종길 목사, 영덕불교사암연합회장 현담 스님, 포항불교사암연합회장 덕화 스님, 영덕·포항·울진 불교사암연합회 회원 스님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는 대령, 관음, 상단불공 의례로 진행됐다. 장사상륙작전에서 전몰한 영웅들을 법석에 정하여 호법선신들의 옹호 속에 상단불공을, 포항불교사암연합회 범음법패 소속 대령·현각 스님과 부산전통불교무용연구원 윤영수 불자가 천도의식을 진행했다.

2부 추념의식으로 합동 위령제가 열렸다. 국민의례와 함께 50사단 장병들이 9월의 초종발사에 이어 이희진 영덕군수의 헌



영덕불교사암연합회는 9월 3일 제35회 장사상륙작전참전 전몰용사 합동위령제를 열었다.

화와 분향 후 3대 종교의 추념의례, 삼귀의례, 분향식, 추모기도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추념사에서 "전우들의 업적을 알고 있는 유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국민단합과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후세들에게 나라 사랑을 알려가자"고 전했다. 이어 한민군 국방부장관은 추념사(안병태 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 대독)에서 "772명의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국토 국방에 최선을 다하고 더 나아가서는 조국통일을 앞당기자"고 강조했다. 또한 이진삼 前육군참모총장은 "역사를 모르는 자는 장래도 없다. 전쟁을 모르는 자

평화도 없다. 국가와 군인이 무엇인지 후대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전몰용사 추념사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포항불교사암연합회 자문위원 준재 스님은 법문을 통해 "이 행사는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이 지역 3대 종교지도자의 힘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법문했다.

이어 장학금·감사패 전달식이 이어졌다. 김영재 유격동 지회장이 정관에 따라 영덕고등학교 조재영, 김병수 학생에게 장학증을 수여했다. 감사패는 매년 위령제 행사 때마다 봉사활동을 한 장사리 허동래 부녀회원에게 돌아갔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서거제로타리클럽 거제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경남 서거제로타리클럽(회장 강도화)이 명절을 맞아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이 위탁 운영하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기련)에 후원금 90만원을 전달했다.

거제로타리클럽 3590지구 서거제로타리클럽은 이사회를 통해 지역의 소외된 이웃 3세대에 대해 각각 30만원을 전달키로 결정하고 9월 4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전달식을 가졌다.

강도화 서거제로타리클럽 회장은 "서거제로타리클럽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좋은 일을 지속해왔던 만큼 지역 내의 꼭 필요한 봉사단체로 거듭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김나영 객원기자



경남 서거제로타리클럽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 "한국불교와의 인연으로 행복 가득하길"

## 통도사 영축문화회관 베트남 불자회 법회

양산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원산) 영축문화회관(원장 원산)이 베트남 불자들을 위한 법석을 마련했다.

영축문화회관은 9월 7일 회관에서 대구 베트남 불자회(회장 원 호영) 300여 명을 초대해 법당을 제공하고 한가위 맞이 선물을 준비해 타국에서 생활하는 베트남 이민자들을 격려했다.

베트남 불자회는 베트남 틱티엔 퓌 스님을 이번 법회에 초청했으며 통도사에서 포교국장 선본 스님이 참석해 베트남 불자들을 환영했다.

선본 스님은 "베트남·미얀마 한국 등 언어와 표현방식은 달라도 부처님의 말씀과 뜻은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한국불교와의 인연이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행복으



영축문화회관은 추석을 맞아 대구 베트남 불자회 300여 명을 초대했다.

로 이끌어줬으면 한다"며 격려했다.

한편 베트남 불자회는 지난 4월 통도사에서 공식적인 창립법회를 가졌으며 영축문화회관은 이번 법회를 계기로 다문화 가정 상담 등 한국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민자들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칠 예정이다.

김나영 객원기자

# 무심천 직지 유등문화제 열린다

## 9월 19일 청주청원불교연합회... 다문화 가정에 장학금 전달식도

청주청원불교연합회가 주관하고 전통문화계승발전연구회가 주최하는 '2014 무심천 직지유등문화제'가 9월 19일 청주 무심천에서 열린다.

2014직지유등문화제는 통합 청주시 출범을 기념해 예년보다 확대돼 열린다. 이와 함께 9월 26일 개막하는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 엑스포 사전행사 중 전통 문화축제로서도 치뤄진다. 9월 19일 개막식에

서는 오후 6시 '유등 띄우기'를 시작으로, 유등문화제 기념공연, 시민음악회가 3시간 가량 진행된다. 이와 함께 행사에서 충북지역 다문화·새터민 가정 청소년 20명에게 4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된다.

한편, 직지유등문화제는 2005년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과 연계해 해마다 50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 축제로 발전했다. 노덕현 기자

# 부산 원오사 법화산림법회... 9월 27일 입재

부산 반송 원오사(주지 정관)가 생전에 수재를 맞아 법화산림 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화산림은 입재인 9월 27일부터 회향인 11월 15일까지 법산 스님(동국대 교수), 용학 스님(범어사 강주), 현진 스님(통도사 강주), 지안 스님(반야암 회주, 조계종고시위원장), 해남 스님(통도사 전 계사), 반산 스님(쌍계사 강주), 덕문 스님

(통도사 율원장), 수진 스님(범어사 율학대학원 원장) 등이 참석 법화경을 주제로 진행된다.

원오사는 "신도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펼쳐지는 큰 스님들의 법화경 법석을 통해 자신의 업을 닦고 공덕을 짓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며 이번 법회의 취지를 밝혔다. (051)542-7949 김나영 객원기자

# 한국불교상담학회 글쓰기 명상프로그램

한국불교상담학회(회장 백경임)가 글쓰기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마음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2014 글쓰기 명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9월 27일~28일 1박 2일로 진행되는 이번 명상 프로그램은 김성수 마음과학연구소 대표(소설가)가 특강 강자로서 나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에너지공학과관 1층 세미나실에서 참가자들을 만난다.

강의 내용은 글쓰기 명상에 대한 이해와 나누기, 인생 연대표 작성하기 등 작문을 통해 객관적으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순서들로 진행되며 프로그램 이수 시 불교상담전문가 자격인증에 포함되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참가신청 및 문의는 한국불교상담학회 kbca08@hanmail.net으로 하면 된다. 김나영 객원기자

# 서방정토와 빛으로 링크(연결)된 지구촌 보물 5호 '현지사 대전분원 미타성전', 오탁악세에 염불행자를 서방 극락정토로 이끄는 선봉이 되다!



현지사 대전분원

## ■ 자성미타 유심정토(自性彌陀唯心淨土)?

우리나라 불자들 중에는 '마음이 정토인데 마음 밖에 무슨 정토가 따로 있으며, 우리의 마음 자성(自性)이 미타불인데 무슨 미타불이 따로 있는가?' 하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선종(禪宗)의 견해로서 '직지인심(直指人心) 간성성불(見性成佛)'이라는 선종의 종지를 선양하기 위한 종파적 주장에 불과할 따름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자성미타 유심정토'는 불법의 정견(正見)이 아니며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중생구제의 원력을 부정하는 것으로 많은 불자를 오도하는 망어(妄語)입니다. 부처님들은 분명히 계교 서방정토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토 법문이 결코 방편이 아닙니다.

## ■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비밀

서방정토 극락세계는 아미타부처님의 대자대비한 원력으로 만들어진 삼계를 벗어난 해탈열반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나 괴겁시에 무너져 없어지더라도 서방정토는 건재합니다. 다감성의 업장이 소멸되고 선근공덕이 많은 보살이 가는 세계로서 1번영체(causal body)로 가며 여성이 없습니다. 여성이 왕생하는 경우는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변녀성남(變女成男)해서 가게 됩니다. 서방정토의 보살 몸은 9품이 아니고 27품입니다. 서방정토는 아라한들이 머무는 세계(色界)의 최상층보다 높고 청정한 해탈세계이기 때문에 왕생할 보살이 적용하기 위해 영체와는 다른 해탈신(解脫身)이 필요합니다. 이 해탈신은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해 무량광 빛의 몸으로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아기 상태이고 정토에 왕생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체와 결합하여 40대 초반의 모습이 됩니다. 경전에서 염불행자가 연꽃 위에 화생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서방정토에는 연꽃이 많고 물은 눈이 부시도록 투명하며 다양한 색깔의 연꽃이 만발해 있습니다. 땅은 모두 황금색이고 공은 나무들이 줄지어 있으며 바람에 따라 아주 아름답고 미묘한 음을 냅니다. 열심히 염불하겠다고 마음이 아직 순숙(純熟)하지 못한 염불행자는 바로 정토로 가지 못하고 '대기정토'에서 더욱 수행을 해야 합니다.

## ■ 대자대비하고 거룩한 아미타부처님

아미타부처님은 오여래부처님 중 한 분입니다. 오여래부처님은 모든 부처님들을 대표하는 다섯 분의 부처님으로 석가모니부처님 다보여래를 약 사여래를 아미타를 보명불을 말합니다. 아미타부처님은 무량겁 전에 세자재왕불이 출세 하셨을 때, 그 나라의 국왕으로 있었는데 보살심을 발하



대전분원 정기법회

## ■ 불자들은 '나우아미타불' 염불해야

'나우아미타불' 염불 한마디가 능히 팔십억겁의 죽고사는 죄업을 소멸시킨다.(念佛一聲 能滅八十億劫生死重罪)고 하였습니다. 또 고인이 말하기를 '세상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염불할 수 있으니 염불법문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 ■ '나우아미타불' 염불의 이익

어느 날 현지사의 광명민덕 큰스님의 염불심매 중 무량억축광 빛의 몸으로 나무신 아미타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를 칭명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라고 여쭙신 말씀에 아미타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아미타부처)를 염심으로 칭명하면 업장이 소멸된다. 또 불행이 평안하여 만나는 인연마다 선하고 착하

## ■ '나우아미타불' 염불의 이의

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여 편안히 갈 수 있고 다음 생애는 좋게 태어난다. 어떤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경전을 읽고 다니라 하며 지극 정성으로 나를 칭명하면, 나는 위신력으로 그 중생의 수원을 상속하여 버리지 않으며 그는 자신이 인정되고 정신이 맑아지며 죽으면 왕생극락까지 갈 수 있다네!"



미타성전 무량수전

※ 아미타부처님 재일 매월 음력 5일 오전 9시30분

## 자재 만현 큰스님 법회 안내

### 현지사 춘천본사 정기법회 9월 21일(일) 오전 9시

업장을 씻어주는 세계유일의 부처님화상에서 불과 이룬 큰스님의 사자후를 들어보십시오! 세계 어느 불교에서도 몰랐던 부처님세계와 인간 영혼체에 대한 깊은 비밀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21세기 인류정신을 향도하고 불교사의 새 장을 열어가길 우주적 진리의 선봉교를 만나보십시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저자 자재만현 큰스님의 동영상 법문(250회제)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버스 운행됩니다. 문의 033)243-1787, 1795